

국채 백서, 「국채 2024」 발간

- 최상목 부총리, “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은 우리 국채시장이 선진 국채시장으로 인정받은 것”, 올해에도 “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발전 노력 지속”

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, 2024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, 「국채 2024」를 발간하였다.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“2024년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확정으로 국채시장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은 한 해”였다면서, WGBI 편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, 국민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하며, 우리 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.

아울러 총 157.7조 원의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제회복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, 우리 국채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, 외국인 국채 투자도 전년 대비 19.4조원 증가하여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인 22.8%를 기록했다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2025년에도 200조원 이상의 국채를 원활히 발행하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, WGBI 편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,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, 국채선물 야간거래 시장 개시, 녹색국채 도입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국채상품 다양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.

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국채 시장을 소개 및 홍보하기 위해 영문판 「Korea Treasury Bonds 2024」도 함께 발간했으며, 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(www.moef.go.kr) 또는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홈페이지(ktb.moef.go.kr)에서도 전자문서(PDF)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
※ 「국채 2024」 주요 내용은 [별첨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 장	이근우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최나은 (red6559@korea.kr)



1 2024년 국채시장 동향

① (금리)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, 글로벌 시장 대비 안정된 모습

- (해외) 글로벌 금리인하*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, 美 인플레이션 하락세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세
 - * (ECB) 6·9·10·12월 0.25%p씩 인하 / (Fed) 9월 0.5%p, 11·12월 0.25%p씩 인하
- (국내) 5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, WGBI 편입 결정 등으로 금리 하락세
 - 연말 국내 정치 불확실성, 美 관세정책 우려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, 전년말 대비 하락 마감

2024년 글로벌 금리(10년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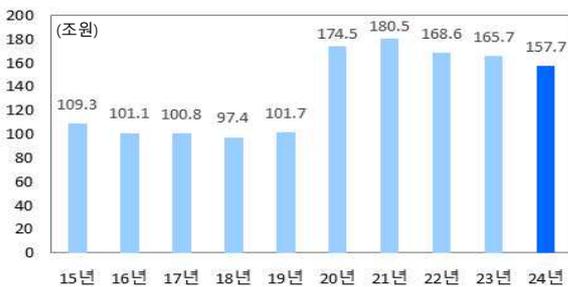
2024년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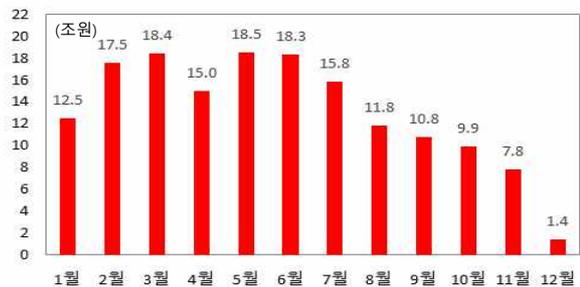
② (발행) 국고채 총 157.7조원 발행 ('23년 165.7조원 대비 △8.0조원)

- 시기·연몰별 발행량 조정,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전략적 국고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국고채 물량 소화 유도
 - * 연간 국고채 발행량 : ('20년) 174.5조원 → ('24년) 157.7조원

최근 10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 추이



2024년 국고채 월별 발행량



① 세계국채지수(World Government Bond Index)* 편입

- *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고 추종자금 규모만 2.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, 런던증권거래소그룹(LSEG) 산하 FTSE 러셀에서 관리
-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('22.9월)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편입* 성공('24.10월)
 - * '26.4월부터 한국 국채의 실제 지수편입 예정, 예상 편입비중은 약 2.05%
- 금리 안정으로 국민·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, 대규모 자금 유입에 따라 외환시장 및 중장기 재정운용 안정화에 기여 예상

②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

- 국제예탁결제기구(ICSD) 국채통합계좌 개통('24.6월)
 - * 국내 보관기관 계좌 개설 없이도 국채투자 가능, 역외 장외거래 허용 등 편의성 개선
-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시행('24.7월)
 - * 외환거래시간 연장(익일 02시),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
-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·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차 간소화('24.12월)
 - * 하위 투자자가 아닌 국외투자기구(사모 포함)가 비과세 적용 직접신청 가능
-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('23.12월)후 투자자 허용범위 확대('24.6월)
 - * 계좌개설 가능한 법인식별수단(Legal Entity Identifier) 기준 완화

③ 국채 투자기반 및 수요 다변화

- 국채 30년 만기 선물시장 개설('24.2월)
 - 야간 국채선물 시장 개장 예정('25.6월)
- '24년 개인투자용 국채 총 7,377억원 발행('24.6~12월)
 - 5년물 신규 발행, 청약 기간·시간 연장, 자동청약 서비스 도입('25.3월)